

부모 양육태도 및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self-esteem, materialism in adolescent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김유연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박성연

Dept. of Consumer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Kim, Yoo Yun

Dept. of Consumer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 Park, Seong Ye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materialism and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materialism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439 first-grade high school students in Kang-nam area located in Seoul.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 (1)Material valu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SES and parents' education; (2)Adolescents whose parents are permissive or inconsistent have higher material value. On the other hand, adolescents whose parents are affectionate have relatively lower material value. And adolescents who communicate openly with their parents also have lower material value; (3)Lower material value was found for the adolescents whose self-esteem was high; (4)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was found: Adolescent's self-esteem mediate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and material value of adolescents.

◆ key word: 물질주의 가치관, 양육태도,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I. 서론

경제개발 중심의 국가정책에 의한 급격한 경제발전은 갑작스런 사회변화와 함께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를 인간 행복의 우선 조건이라고 여기는 물질주의 가치관의 팽배이다. 더욱이 이러한 물질주의 가치관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과 심지어 아동에게까지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는 아직 자립성 및 확고한 가치관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잘못된 생각을 여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그 위험성을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물질에 대한 강력한 소유 집착은 소유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규제를 무시하고서라도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낳게 되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현대 사회의 인명 경시현상과 도덕성 상실 등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다양한 청소년 범죄와 사회 문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에게서 높은 물질주의 성향이 나타나는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면 크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된 전체 사회 분위기, 가정에서의 부모와 가족의 영향, 개인 내적 동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중,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 환경적 원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부모의 양육태도와 함께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등을 그 대표적 요인들로 꼽을 수 있다. 즉, 가치관은 가정 환경에서의 부모의 양육과 역할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부모의 행동과 생각을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가 내면화 시키게되는데 이 같은 가정에서의 일차적인 형성을 바탕으로 해서 또래 집단의 영향으로 가치관이 재구성된다(정원식, 1977)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밖에 청소년 자신의 개인 내적 동기 원인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관점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지고 이러한 부족한 자신감은 인간의 내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외적인 부분, 즉 재화나 소유물을 통해 대리 만족하려는 성향을 가져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물질주의 성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청소년의 높은 물질주의 성향의 주요 배경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정에서의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 방식, 개인의 낮은 자아존중감 등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중점을 두고 이들 변인들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도모하여 현 시대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그 근본 원인부터 해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물질주의 가치관의 개념 및 청소년 행동과의 관계

물질주의 가치관이란 물질의 소유에 대한 강한 욕망으로 삶의 중심을 물질에 두고 이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Belk, 1985). 물질주의 가치관은 인간의 사고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이기주의 성향이나 비인간화를 증가시키기도 하는데 즉, 물질주의가 높은 사람은 물질에 이끌려 마음이 황폐되고 타인에 해를 가해서라도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행동하기 쉬우므로 인간에 대한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을 갖기 쉽고(전귀연, 1998), 재화의 소유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려는 성향은 파소비, 사치와 같은 비효율적인 소비행동을 증대시킨다(백경미, 1994; 송은경, 1997). 특히, 물질주의 성향으로 인한 이러한 영향은 정서가 불안정하고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

에게 더욱 심각한데 인간 경시 경향 풍조와 과소비, 사치 등의 잘못된 소비행동 등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자신의 소유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목숨이나 권리까지도 쉽게 희생시킬 수 있는 범죄를 단행하거나 혹은 심각한 비행 등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심각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물질주의 가치관과 관련된 변인들

물질주의 가치관과 관련된 변인은 매우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변인에 관하여 사회, 가정, 개인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 인구학적 변인: 교육수준, 경제수준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관하여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물질주의 성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교육수준과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대체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김미선, 1996; 송준향, 1993; 임정빈, 1988; Belk, 1985)인데 이와는 달리 학력이 높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낮다(백경미, 1994)는 결과와 학력과 물질주의간의 관계가 없었다(김민희, 1998; 송은경, 1997)는 보고도 있어 교육수준에 따른 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한편, 경제수준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다는 대체로 일치된 결과(백경미, 1994; 송인숙, 1993)를 보고 하지만 성인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김미선, 1996; 김민희, 1998)도 있다.

2) 가정적 변인: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

인간에게 있어서 어떠한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정과 학교, 사회 및 문화 등이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확고한 가치관이나 신념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행동을 통

해 보고 느끼고 행동하며 부모의 태도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게 되기 때문에(조남연, 1981) 가정 및 부모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물질주의 가치관의 경우도 다른 가치관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부모 변인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양육태도, 의사소통, 가정환경 등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Carlson과 Grossbart(1988)는 초등학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태도를 민주적(Authoritative),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방임적(Neglecting), 엄격한 통제(Rigid controlling)로 나누어 그들의 물질주의 성향 및 자녀들의 소비에 대한 대화와 규제 등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민주적인 어머니는 물질주의 성향이 낮으며 소비에 대해 보다 경제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방임적인 어머니들은 보다 높은 물질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러한 어머니들의 성향은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도 반영되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가정환경과 그들의 물질주의 성향에 대해 알아 본 결과(Rindfleisch, Burroughs, Denton, 1997), 이혼 가정이나 편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젊은 이들은 양쪽 부모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들보다 더 물질주의 수준이 높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고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 가정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의 물질주의 성향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편부모가정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이 물질로 바람직한 부모의 부재 및 부모의 사랑을 대치하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밖에도 국내연구에서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송은경, 1997), 부모가 허용적일수록 자녀의 물질주의 성향이 높았다.

한편, 의사소통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관련 선행연구를 찾기 어렵지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Moschis(1985)의 연구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가치관과 행동들이 자녀에게 전이된다는 결과는 가족 간 대화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즉,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행하는 부모는 보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바

람직한 양육이 낮은 물질주의 성향과 관련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결과적으로 낮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관련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은 자녀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가 민주적이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 때 자녀의 물질주의 성향은 낮고 부모가 방임과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자녀의 물질주의 성향은 높다는 결과로 요약할 수 있다.

3) 개인 내적 변인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발달적 변화와 적응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변화를 거듭하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및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Richins & Dawson, 1992)를 살펴보면 높은 물질주의 성향은 불만족스런 대인관계나 자신감 부족 등에 기인하며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물질주의 척도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물질주의 성향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누구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아의 이미지가 소유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아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더 물질이나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Craig & Elizabeth, 1995)도 역시 물질주의 성향과 자아존중감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지지한 앞에서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간의 관계를 높은 물질주의 성향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는 논리로 설명하는 주장(Richins, 1987)도 있다. Belk(1985) 역시 다양한 직업 층과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질주의 성향을 연구한 결과 물질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삶을 덜 행복하게 여기고 결국 이러한 불만족은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국외연구에 비해 국내에서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데

송은경(1997)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물질주의 성향과 자아존중감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대체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그들 자신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그들 자신의 물질주의 성향이 높다는 결과로 종합할 수 있다.

3. 부모 변인(양육태도 및 의사소통) 및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부모변인과 물질주의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모변인, 자아존중감, 물질주의 가치관 세 변인들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앞에서 부모 변인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으므로 부모변인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많은 학자들이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 방식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왔다. Thomas(1972)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방임적 혹은 비판적인 태도는 자녀의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Coopersmith(1967)는 부모가 수용적일 때 자녀는 자기 자신이 가치 있고 사회적으로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맥을 같이하는 국내연구들로는 청소년기의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 추구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 자아개념이 긍정적이었다고 한 임선화(1987)의 연구 외에도 부모자녀 관계는 서로간에 애정이 있으면서도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면서 민주적일 때 청소년 자녀의 자아개념이 높다고 보고한 일련의 연구들(공경환, 1998; 배숙진, 1998; 송양호, 1999; 이애수, 1990)이 있다. 이밖에도 길동환(1993)은 부모가 자녀와 수용적인 자세로 의사소통하고 자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거부적일 때보다 자녀의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요약해보면 대체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 자율적, 민주적, 애정적이고 자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반면 부모가 거부적, 권위주의적이며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 변인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 방식과 자녀의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으리라 가정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 방식은 청소년 자녀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 방식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물질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것인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강남에 위치한 남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총 439명(남: 49.4%/ 여:50.1%)으로서 대상의 연령은 평균 16.7세이었고, 출생순위는 외동이를 포함하여 첫째가 약 48% 정도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이상(부: 98.0%/ 모: 95.4%)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 경제수준을 중(67.2%)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는 기존 연구들(김보형,

1999; 박성연·이숙, 1990; 박영애, 1995; 오미경, 1997)을 참고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총 24문항으로 비일관적 태도, 애정적 태도, 허용적 태도, 통제적 태도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6문항씩으로 되어있다. 양육태도 유형은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바람직하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일관적 태도(예: 아버지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어떠한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신다.)와 허용적 태도(예: 아버지는 내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 해 버릴 때가 많으시다.) 및 바람직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 애정적 태도(예: 아버지는 나에게 깊은 관심을 베풀어주신다.)를 택하였으며 이밖에 통제적 태도(예: 아버지는 내가 일정한 귀가시간보다 늦으면 이유를 반드시 물어보신다.)를 선택하게 되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각 태도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척도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 실시 결과 부모 모두에서 네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총 24개의 문항중 요인이 구분되지 않는 다섯 개의 문항이 제외되어서 19개의 문항만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양육태도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70에서 .90사이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2) 개방적 의사소통 척도

부모 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오미경(1997)이 김진희(1989)의 것을 토대로 구성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문항 각각 7문항씩의 14문항을 사용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한 결과 아버지는 .90, 어머니는 .91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14개 문항에 대하여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한 요인분석 결과, 기존 연구(오미경, 1997; 김진희, 1989)와 일치하여 한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3) 물질주의 가치관 척도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서 Richins와 Dawson(1992)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물질이 성공의 지표라는 생각인 성공(6문항), 물질의 중요성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인 전반적인 물질주의 가치관(7문항), 물질이 행복을 위한 필수라는 생각이라는 행복(5문항)의 3개의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척도로 되어있다. 한편, 타당도 검증을 위해 oblimin 회전방식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 연구(Richins & Dawson, 1992)에서의 요인들과 일치한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각각 성공요인이 .71, 전반적 물질주의 요인이 .68, 행복 요인이 .79로 이들을 합한 전체 물질주의 가치관의 신뢰도는 .88이었다. 세 가지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요인들간에 상관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평균 .66) 이들 세 요인을 각기 다른 요인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세 가지 하위요인들을 합한 전체 물질주의 가치관 점수 한가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아존중감척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양원경(1999)이 Harter(1985)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을 사용한 것을 연구 대상인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이해와 의미전달을 돕기 위해 연구자가 다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33개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요소로는 운동능력,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신체용모, 전반적 자아가치감, 행동품행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척도로 되어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척도에 대한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한 요인분석 결과 기존 연구(양원경, 1999)에서 여섯 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던 것과는 달리 전반적 자아가치감 요인은 삭제되어 다섯 개의 요인(신체용모, 사회수용, 운동, 행

동품행, 학업)이 추출되었다. 총 33개의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35이상으로 다른 요인에 종속되지 않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문항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여덟 개의 문항이 제외되어 분석에는 총 25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하위척도들의 신뢰도는 .65 ~ .88 사이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일부 자료분석시 5가지 하위요인들을 합한 점수를 전체 자아존중감이라고 지칭하여 사용하였음을 명시한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00년 2월에 서울시 강남지역에 위치한 남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각반의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학급 토론시간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완성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하도록 하였다. 총 500부중 473부만이 회수(회수율=94.6%)되었고 무응답과 불충실하게 응답한 24부를 제외하여 총 43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이밖에 평균과 표준편차, t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성별, 경제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들의 물질주의 가치관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해 성별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였고, 경제수준 및 부모의 교육수준과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물질주의 가치관은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고($t = -.44, p > .05$) 경제수준 및 부모의 교육수준과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인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서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경제수준과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 관계 분석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두 경우 모두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비일관적 양육태도(부: $r=.25, p<.001$ / 모: $r=.17, p<.01$), 허용적 태도(부: $r=.11, p<.05$ / 모: $r=.24, p<.001$)와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애정적 태도(부: $r=-.22, p<.001$ / 모: $r=-.22, p<.001$)와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통제적 태도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표 1〉 참고). 즉, 부모가 비일관적이고 허용적일 때 자녀의 물질주의가 높고 부모가 애정적일 때 자녀의 물질주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와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물질주의 가치관 점수와 아버지와 의사소통($r=-.22, p<.001$), 어머니와의 의사소통($r=-.18, p<.001$)과는 부적인 상관이 나타나 부모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 할 때 자녀의 물질주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과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물질주의 가치관은 전체 자아존중감($r=-.33, p<.001$)을 비롯하여 각 하위 요인들인 신체용모($r=-.31, p<.001$), 사회수용($r=-.27, p<.001$), 행동품행($r=-.31, p<.001$), 학업($r=-.14, p<.001$)요인들과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표 2〉 참고).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물질주의 가치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전체 자아존중감이 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11%($F=48.49, p<.001$)이었다.

4.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과 청소년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에서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과 청소년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에서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표 3〉 참고). 아버지의 경우 비일관적 태도에 관해서는 신체용모와 학업요인을 제외한 행동품행($r=-.21, p<.001$), 운동($r=.11, p<.05$), 사회수용($r=-.11, p<.05$)의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는 신체용모와 운동변인을 제외한 행동품행($r=.28, p<.001$), 학업($r=.20, p<.001$), 사회수용($r=.15, p<.01$)의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허용적 태도의 경우는 행동품행($r=-.14, p<.01$)과 학업($r=-.15, p<.01$)에 관한 변인만이 유의했다. 한편, 통제적 양육태도는 모든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보면 어머니의 비일관적 태도는 신체용모($r=-.16, p<.01$), 행동품행($r=-.27, p<.001$)과의 상관이 유의해서 아버지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는 운동변인을 제외한 신체용모($r=.15, p<.01$), 사회수용($r=.16, p<.01$), 행동품행($r=.26, p<.001$), 학업($r=.15, p<.01$)의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허용적태도는 행동품행

〈표 1〉 부모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N=419

	부모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									
	아버지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				의사소통	
	비일관	애정	통제	허용	비일관	애정	통제	허용	부의사	모의사
물질주의가치관	.25***	-.22**	-.03	.11*	.17***	-.21**	-.09	.24***	-.22***	-.18***

* $p<.05$ ** $p<.01$ *** $p<.001$

〈표 2〉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N=420

	자아존중감					
	신체용모	사회수용	운동	행동품행	학업	전체자아존중감
물질주의가치관	-.31***	-.18***	-.03	-.31***	-.16**	-.33***

** p<.01 *** p<.001

〈표 3〉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N=418

	자아존중감					
	신체용모	사회수용	운동	행동품행	학업	전체자아존중감
아버지 양육행동						
비일관	-.09	-.11*	.11*	-.21**	-.05	-.13*
애정	-.01	.15**	.01	.28***	.20***	.20***
통제	.03	.06	.02	.06	.00	.04
허용	-.03	.03	-.07	-.14**	-.15**	-.10*
어머니 양육행동						
비일관	-.16**	.01	.02	-.27***	-.08	-.15**
애정	.15**	.16**	.01	.26***	.15**	.24***
통제	-.16**	-.05	-.05	.12*	.00	-.01
허용	.01	-.03	.06	-.13**	-.14**	-.05
의사소통						
부의사소통	.06	.18***	.04	.21***	.17***	.21*
모의사소통	.09	.17***	-.01	.20	.17***	.19***

* p<.05 ** p<.01 *** p<.001

($r=-.13, p<.01$), 학업($r=-.14, p<.01$)에 관한 변인만이 유의했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한 결과였다. 한편, 통제적 양육태도는 아버지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신체용모($r=-.16, p<.01$)와 행동품행($r=.12, p<.05$)에서 유의한 상관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모두 유사하게 신체용모와 운동을 제외한 사회수용(부: $r=.18, p<.001$ / 모: $r=.17, p<.001$), 행동품행(부: $r=.21, p<.001$ / 모: $r=.20, p<.001$), 학업(부: $r=.17, p<.001$ / 모: $r=.17, p<.001$)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개방적 의사소통변인이 청소년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물질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모델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첫 단계에서 부모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과 청소년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종속변인)에 대한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독립변인)의 설명력이 자아존중감(매개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얼마큼 감소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변인 중 한가지 변인과 자아존중감 변인 총 두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물질주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 변인 총 10개 가운데 상관 관계분석에서 물질주의 가치관과 자아존중감에 대해

모두 유의한 상관을 갖는 아버지의 비밀관, 애정, 허용, 의사소통변인과 어머니의 비밀관, 애정, 의사소통변인이 매개효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 7개의 변인들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함께 넣어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종속변인인 물질주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양육태도 변인 단독으로 넣었을 때보다 감소된 것은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beta = -.22$, $p < .001$ 에서 $\beta = -.16$, $p < .01$), 허용적 태도($\beta = .11$, $p < .05$ 에서 $\beta = .07$, 유의도 없어짐)와 개방적 의사소통($\beta = -.22$, $p < .001$ 에서 $\beta = -.15$, $p < .01$)이었고, 어머니의 비밀관적 태도($\beta = .17$, $p < .01$ 에서 $\beta = .12$, $p < .05$), 애정적 태도($\beta = -.21$, $p < .001$ 에서 $\beta = -.13$, $p < .01$)와 개방적 의사소통($\beta = -.18$, $p < .001$ 에서 $\beta = -.12$, $p < .05$)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특히, 아버지의 허용적

태도에서 유의도가 사라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을 완전매개로 하여 물질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다섯 개의 변인들(부애정, 부의사소통, 모비밀관, 모애정, 모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을 부분매개로 하여 물질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표 4) 참고.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남학생과 여학

〈표 4〉 부모변인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model	독립 변인	β	R ²
1	아버지의 허용적 태도	.11*	.01*
2	아버지의 허용적 태도 자아존중감	.07 -.32***	.11***
1	아버지의 비밀관적 태도	.25***	.06***
2	아버지의 비밀관적 태도 자아존중감	.22*** -.30***	.15***
1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	-.22***	.05***
2	아버지의 애정적 태도 자아존중감	-.16** -.30***	.13***
1	아버지의 의사소통	-.22***	.05***
2	아버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15** -.30***	.13***
1	어머니의 비밀관적 태도	.17**	.03***
2	어머니의 비밀관적 태도 자아존중감	.12* -.31***	.12***
1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	-.21***	.04***
2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 자아존중감	-.13** -.29***	.12***
1	어머니의 의사소통	-.18***	.03***
2	어머니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12* -.31***	.12***

* $p < .05$ ** $p < .01$ *** $p < .001$

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라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 가치관에서 성차가 없다는 것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송은경, 1997; 서정희·조영희, 1997)과 일치한다. 한편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결과는 경제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높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백경미, 1994; 송인숙, 1993; 송준향, 1993)과는 다른 결과였지만 두 가지 변인간의 유의한 관계를 찾지 못한 김미선(1996)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었다. 한편, 부모의 교육수준의 경우 역시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백경미, 1994; 송준향, 1993; 임정빈, 1988)이 교육수준과 물질주의간의 정적 또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선 경제수준 및 부모의 교육수준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에 실제로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부모의 학력이나 가정의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등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제수준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학생 자신이 지각한 주관적인 자료였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이 자녀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가 비일관적이거나 허용적일수록 자녀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애정적일 때에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 할수록 자녀의 물질주의 성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송은경, 1997; Carlson & Grossbart, 1988; Moschis, 1985; Rindfleisch et als., 1997)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항상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일관적으로 지켜야할 규칙과 행

동을 제시해 주는 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양육태도이며 반대로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한을 가하지 않거나 무관심하면서 서로간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에서의 자녀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 가정된다.

이외에도 선행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비일관적 태도, 통제적 태도와 자녀의 물질주의 성향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보면 비일관적 태도의 경우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적합한 설명이나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부모의 감정대로 일관되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므로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높은 물질주의 성향과 관련될 것임은 짐작 가능하다. 또한 통제적 태도는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제한과 감독(monitoring)을 하는 태도라고 볼 때 비교적 바람직한 태도이므로 약하게나마 낮은 물질주의 성향과 관련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그들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신체용모, 학업, 사회수용, 행동표형에 대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부적인 관계를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Belk, 1988; Craig & Elizabeth, 1995; Richins, 198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만족감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타인보다 원만하고 보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강한 유대감과 사람들끼리의 결속감은 물질이나 재화에 덜 집착하게 만들게 될 것이므로 그들의 물질주의 수준도 낮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부모의 허용적 태도와 비일관적 태도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태도이고 애정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 연구들(공경환, 1998; 길동환, 1993; 배숙진, 1998; 송양호, 1999; 이에수, 1990; 임선휘, 1987)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

모를 애정적, 개방적,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은 부모로부터 사랑과 이해를 얻고 있고 무조건적인 지시나 억압이 아닌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책임을 배우며 성장하였다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능력을 발휘하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자아존중감도 높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섯째,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물질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는 허용적 태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애정적 태도와 개방적 의사소통 변인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부분적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비일관적 태도, 애정적 태도와 개방적 의사소통 변인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적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부모의 애정적, 통제적 태도 및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높은 자아존중감 및 낮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관련되는 반면, 비일관적이고 허용적 태도는 자녀의 낮은 자아존중감 및 높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관련되는 한편,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물질주의 가치관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부적 상관) 이러한 점들을 조합해 볼 때 논리적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매개효과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이 자녀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주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즉,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자아존중감의 영향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본 연구의 대상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령에 따른 매개효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즉, 고등학생정도라면 부모의 영향력과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비교할 때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각과 관점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가고 있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영향력, 즉 자아존중감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부모의 영향력, 즉 양육태도도 여전히 중요한 변인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면 자신의 영향력보

다는 부모의 영향력이 가치관에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와는 반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면 그들은 부모의 영향보다는 거의 자신의 주관과 의지에 의해 가치관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갖는 매개효과는 청소년의 경우보다도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일관적이고 허용적이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 청소년 자녀의 물질주의 성향이 높았고, 부모가 애정적이고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물질주의 성향이 낮았다. 그리고 대체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물질주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양육태도 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 방식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상관연구로서 연구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다. 또한, 질문지 문항에 대해 연구대상인 학생이 모두 응답하게 함으로써 가정의 실제 경제수준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수준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고 1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가치관에 대하여 부모의 영향과 자기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정도와 양상은 연령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나 대학생 집단과 같이 차별화 되는 연령집단을 연구하여 비교해 보는 것도 요구된다. 이밖에도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부모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 부모-자녀의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나 부모의 가치관과 양육태도간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본 연구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청소년들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단지 생각의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된 행동으로까지 이어져 여러 가지 가시적인 청소년 문제 및 사회문제에까지 이른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크다. 따라서 가정

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청소년 자아존중감이 물질주의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연구 결과가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 청소년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및 행동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공경환(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동환(199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선(1996). 물질주의 성향과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희(1998). 물질주의 성향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형(1999). 경제불황 상황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연·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배숙진(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미(1994). 도시주부의 과소비성향과 영향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정희·조영희(1997). 청소년 소비자의 물질주의 성향과 준거집단이 의복동조성에 미치는 영향. *광고연구* 34, 114-135.
- 송은경(1997). 청소년 소비자의 물질주의 및 과소비 성향과 관련요인. 인하대학교 대학교석사학위 논문.
- 송양호(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진로의사결정 유형과의 상관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숙(1993). 소비자의 구매중독 성향 및 영향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준향(1993). 국민학생의 물질주의에 관한 연구: 부모, 조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원경(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 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경(1997).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애수(1990). 가정환경 변인과 청소년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화(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1988). 가치성향의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귀연(1998). 가족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87-101.
- 정원식(1970). *가정환경 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배영사.
- 조남연(1981). 학습우수아와 학업부진아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on, R., & Kenny, D.(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lk, R. W.(1985).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 265-277.
- Belk, R. W.(1988). Possession and the extended self.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 139-168.
- Carlson, L., & Grossbart, S.(1988). Parental style consumer socialization of childre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 77-94.
- Coopersmith, S.(1967).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 Craig J. Thompson & Elizabeth C. Hirschman(1995). Understanding the socialized body: A poststructuralist analysis of consumers' self-conceptions, body images, and self-care pract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 265-276.
-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Moschis, G. P.(1985). The role of family communication in consumer socializ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898-912.
- Richins, M. L.(1987). Media, materialism & human happines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4, 352-356.
- Richins, M. L., & Dawson, S.(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303-316.
- Rindfleisch, A., Burroughs J. E., & Denton, F.(1997). Family structure, materialism, and compulsiv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3, 312-326.
- Thomas. J. B.(1972). *Self-concept in psychology and education*. A review of research, London: NFFR publishing Co.